

‘이진숙’ 겨누는 검증 칼끝

내일까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野, 현미경 검증 예고 MBC 시절 노조 탄압·정치 편향 논란 등...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정부업자’로 규정하고 이례적으로 24~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의혹과 그의 정치 편향 논란 및 과거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MBC 보도본부장 당시 세월호 참사 보도의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연인 정치 성향과 관련한 과거 발언들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이용해 주말 골프를 쳤다는 의혹,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당내에선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결정적 한 방’이 없어 고민하는 기류도 일한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 대응해 신상 검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70여 명에 이르는 청문회 증인(27명)과 참고인(46명)이 얼마나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채택 증인 가운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신정아 하안코끼리 상임이사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 검증에 대해 참고인으로 채택된 영화배우 정우성, 가수 설운도,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류승완 등 연에게 종사자들도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후보자는 규정에 맞게 쓴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공직자의 필수 덕목인 도덕성이 형편없고 방송 정책에도 문외한이다. 공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광주 찾은 정의당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권영국 대표, 시의회서 회견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권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들께서 정의당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정의당이 민생 중심으로, 맘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으로 다시 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해결 과제로 광주시에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상생, 폭염 속 폐지 수집 노인 긴급지원금, 무상교통 정책 수용 등을 요구했다.

권 대표는 “정의당이 현장과의 결합력을 잃고 원내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을 귀담아들겠다”며 “전국 조직과 영향력을 갖춘 정당으로서 정책 대

안을 마련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다시 원내로 진입할 것을 다짐했다.

권 대표는 “정의당은 22대 총선 참패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를 추스르는 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적어도 노동자들의 현장에 가장 가깝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활로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있을 때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원내에 없으니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며 “선거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일까 싶지만 지방선거 준비단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기자회견 후 광주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재확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당 의원들 수해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부여 임천면 한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위원, 시당 위원장 선거 방송토론 제안

양부남 후보는 거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강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상임대표가 상대 후보인 양부남(서구) 국회의원에겐 최소 두 번의 방송토론을 제안했다.

강 상임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당원 주권 시대’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며 “11만 권리당원과 140만 광주시민도 시당 위원장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보고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최소 두 번의 방송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전국 민주당 당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당원 중심 광주시당”의 비전을 놓고 대중적으로 후보들이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방송 토론을 통해 당의 구원자 당원들에게 시당의 미래를 보여드리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지난번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들의 방송 토론에 대해서도 시민이 투표권자가 아닌데 왜 공개 토론을 하느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시당 위원장 선거는 민주당 권리당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방송 토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권리당원 상대로 충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방송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상임대표와 양 의원은 전남 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당원 중심’을 기치로 내걸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추경호 “민주 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대응”

방송4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검찰총장 패싱 논란엔 “檢 내부 문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법사위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서 “청문회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지만 민주당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참석 방침을 밝혔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 “보고 관계 등은 검찰 내부 문제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총장이 이와 관련해 자신의 거취를 거론한 것을 두고는 “총장이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박균택 “공무원에 권한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

적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관리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사·광역사·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